

CONTENTS

동아일보사 사외보

「Leader & Reader」 03 · 04월호 (통권 10호)

- 2002년 4월 10일 발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학준
- 발행처 : 동아일보사 (02-2020-066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39
- 기획 : 미디어엔터 (02-717-2205)
- 편집디자인 : 편집디자인실 외곽 (02-2269-1247)
- 인쇄 : 대로인쇄 (02-2278-0773)

2002

03 04

권두에세이

03 '公義를 실현하는 사람'

테마특집

"토요일엔 뭐 하십니까?"

04 한국인의 여가문화

06 선진국 사례

07 기고 | 마니아가 되자

LIVING & CULTURE

08 최고를 향해 | 월드컵 통역 자원봉사자 정경인

10 인생이 흐르는 클래식 이야기 | 슬픈 날, 리트가 듣고 싶다

12 세계의 명 골프코스 | 스코틀랜드의 카누스티 골프 링크스

15 이성주의 건강 이야기 | 눈과 눈물

16 포토 에세이 | 동아국제마라톤

17 특별기고 | 나와 인촌 김성수 그리고 친일논쟁

20 기자와 기사 I | 강남 부동산 열풍 취재기

22 기자와 기사 II | 신차이널리포트 취재기

25 이사람 | 손효림 사회1부 기자

26 취재현장 25시 | 국제부 기자의 하루

28 지금 세계는 | 뉴욕 '계급에 살고 계급에 죽는다'

30 한 권의 책 | 천승걸 교수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야기

31 Event | 다른 고을 차이나

IN DONGA



나와 인촌 김성수 그리고 친일논쟁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는 통찰력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
나라를 잃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민족의 교육과 언론에 대해 쏟은 열정, 주변에 조선 최고의 인재들을 모은 탁월한 리더십,
위험을 무릅쓰고 남모르게 행했던 독립운동 지원, 그리고 무언가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주변사람들을 설득해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은 요즘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덕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

어린 시절 인촌은 나의 우상이었다. 중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까지 내가 읽었던 해방과 독립에 관한 책들은 모두 인촌을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었다. 일제를 거치고 미군정을 거치며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인촌만큼 일관되게 우리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지조를 지킨 지도자를 나는 내가 읽은 책에서 달리 또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나는 요즘 말로 조숙하고 편향되어 중 고등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해방에 관한 책들을 골라 읽은 것은 물론 아니었다. 언론에서 일하고 있던 아버지 덕택에 나는 그러한 책들을 집의 서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물론 그 때 나는 책 속에 등장하는 당시의 무수한 인물과 단체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다만 삼국지를 읽듯이 해방전후의 복잡한 우리 사회를 재미로 읽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마치 박종화의 삼국지를 읽으면 유비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듯이 인촌이야말로 해방정국에서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탁월한 지도자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심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생각은 내가 다니던 학교가 인촌이 설립한 중앙중·고등학교라 는 사실로 인하여 더욱 강화됐다.

인촌과의 멀어짐

그러나 대학에 입학한 후 이러한 나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 '대학입학'이 제공하는 자유에 들떠 이런 저런 모임을 기웃거리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때로는 자유를 넘은 방종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한 선배가 인촌이 친일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건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다음 아년 매일신보의 논설 '학도여 성전에 임하라'였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인촌 뿐만이 아니었다.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문제를 나는 이미 그때 확인할 수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당시 복잡했던 학내분위기는 더욱 더 나의 '의식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언론을 떠나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일하던 아버지의 역할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 같은 혼란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일이 버겁고 무서웠다. 그래서 도피를 선택했다. 그러나 당시 도피의 방법으로 선택한 '입대'와 '유학'이 오늘의 나를 가능케 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은 묘한 인생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상대적으로 격리되어 자신과의 싸움에 임하며 공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내 어린 시절의 '우상'이었던 인촌과도 차츰 멀어지게 됐다.

한국 근현대사 다시 공부

학위를 마친 나는 1987년 운송계도 내가 졸업한 학교의 교수로 선택됐다. 교수가 되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된 나는 그러나 대학시절 혼란을 불러왔던 상황으로부터 더 이상 도피할 수 없었다. 대학은 여전히 국가와 대결하고 있었고, 나는 대학의 '보다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미 대학은 소박하고 도덕적인 저항의 등지라는 70년대의

낭만을 벗어 던진 상황이었다. 80년대의 대학은 뜨거운 혁명에 필요한 이론으로 무장한 저항의 요새로 자리잡고 투쟁을 주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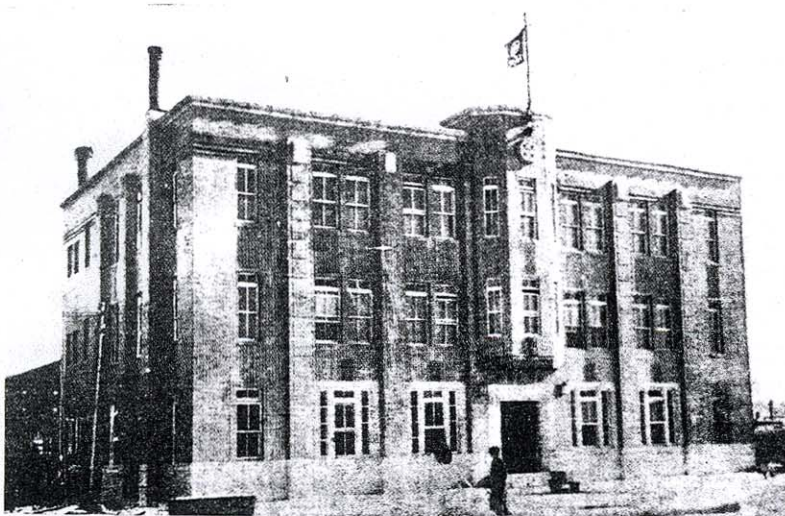
나는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로 결심하였다. 소위 '진보적'이라는 민족경제론과 종속이론 그리고 수정주의적 접근에 관한 문헌을 읽었고, 이들 시각의 배후에 있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물론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했던 이론적 및 방법론적 혼란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일방적 '세뇌'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는 반대편의 시각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 결과 좌파는 좌파대로 또 우파는 우파대로 나름의 위치와 입장에서 우리의 현대사를 만들어 왔을 뿐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혹은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판단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계기로 시작된 나의 '한국 근현대사 공부' 과정에서 다시 만난 사람이 바로 인촌이다. 30대 후반에 들어 다시 시작한 나의 '인촌 읽기'는 10대 때 멋모르고 했던 '인촌 읽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특히 전공과 관련해 제3세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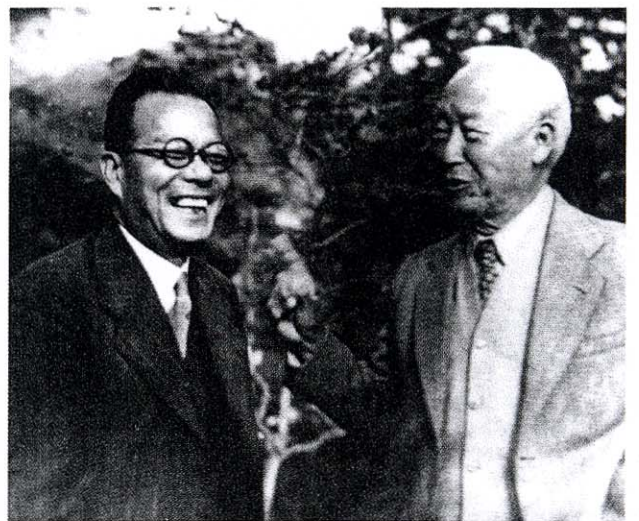
근대화 및 산업화에 관심을 가져왔던 나로서 '명문 지주집안의 아들로 출발해 근대적 기업과 학교 및 언론을 일으킨 인촌의 생애'는 생각할수록 여러 가지를 곱씹게 만드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다른 제3세계 국가의 경우 인촌과 같은 경력을 가진 지도자를 그리 쉽게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체 게바라와 같은 전사(戰士)는 많아도 인촌과 같은 지사(志士)는 많지 않은 것이 제3세계의 현실이다. 특히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는 통찰력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 나라를 잃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민족의 교육과 언론에 대해 쏟은 열정, 주변에 조선 최고의 인재들을 모은 탁월한 리더십, 위험을 무릅쓰고 남모르게 행했던 독립운동 지원, 그리고 무언가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주변사람들을 설득해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은 요즘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덕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원대한 뜻 품고 민족 역량 키운 분

내가 이렇게 말할 경우 요즘 일각에서 주장하는



광화문 현 일민미술관 자리의 초창기 동아일보 사옥 전경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인촌 김성수 선생(왼쪽)

것처럼 “인촌은 친일파일 뿐이야”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같은 시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싶다. 일제하에 조국의 독립을 갈구하고 민족의 미래를 걱정했던 민족주의자들은 참으로 많았다. 민족주의의 뜻을 품은 사람 중에 일부는 고국을 떠나 만주에서 총과 칼을 들고 일제에 맞서다가 순국한 분들도 있고, 다른 한편 지조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등진 분들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도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또 있으니 바로 인촌과 같이 국내에 남아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하며 우리 민족의 역량을 키우려 했던 분들이다.

나는 인촌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고 확신한다. 인촌은 원대한 뜻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민족주의를 실천한 분이였다. 인촌은 민족의 교육기관인 중앙학교와 보성전문학교, 그리고 민족의 표현기관인 동아일보를 지키기 위해 온갖 수모와 난국을 참고 이겨냈다. 특히 전시하의 총독부는 조선의 지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회유와 협박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비롯한 ‘강요된 친일’의 증거를 가지고 인촌을 단죄해야 한다면 우리 국민 가운데 어느 누가 ‘친일파’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당시의 조건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친일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인촌과 같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도적 위치에서 친일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에서 인촌은 마지못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강요된 친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왜 지하로 숨거나 해외로 도피하지 못했냐고 질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보성전문이라는 민족의 미래를 책임진 ‘합법적 수단’을 지켜내는 일이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일보다 가치 없는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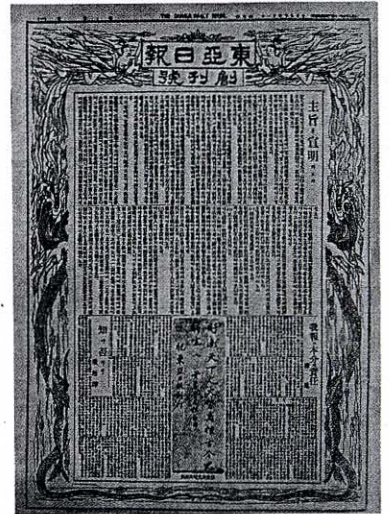
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민족교육과 민족언론의 보루를 지켜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의 집중적인 회유와 협박을 비켜나가는 일에 노심초사했던 한 민족주의자의 외로운 그러나 의로운 모습을 왜 우리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가. 과거의 인촌에 대한 일방적인 미화만약 문제삼을 수 있다면, 요즘의 인촌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 역시 문제삼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조명해야 할 일은 그 실얼음판 같은 경계를 헤쳐나간 인촌의 뛰어난 감각과 기상이다. 특히 인촌이 일제의 눈을 피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소리 소문 없이 지원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강요된 친일만을 내세워 단죄를 주장하는 일은 정말이지 균형을 잃은 편벽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인촌의 그늘에서 살아

어떤 의미에서 오늘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대부분은 이미 인촌이라는 거목이 만들어 놓은 그늘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가 일찍이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육, 언론, 기업분야에 뿌린 씨가 우리의 근대화에 기여하여 왔기 때문이다. 고려대학이 배출한 민족의 동량들이 사회 곳곳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이 되어 오늘의 우리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동아일보의 정론직필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굴곡을 헤쳐 나올 수 있지 않았는가. 인재를 귀하게 여겨 민족의 역량을 키우려고 했던 인촌의 뜻이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 아닌가.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인은 아무도 없다. 민족과 ‘외세’ 그리고 ‘좌’와 ‘우’라는 대결을 거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



1920년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을 자부하며 발간된 동아일보 창간호

물지 않고 있다. 이 상처에 모래를 뿌려 덧나게 하는 일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 보다는 상처를 쓰다듬고 보듬는 지혜가 필요한 때 아닌가. 이제 ‘일방적인 미화’와 ‘일방적인 단죄’를 벗어 던지고 민족과 국가의 화합과 단결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과거를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평가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의 고통과 함께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민족의 당면 과제가 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글 | 유석춘(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 sclew@yonsei.ac.kr)

유석춘님은 1955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 일리노이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7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1990년부터 한국사회학회 편집위원, 1997년부터 계간 '전통과 현대'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저서와 편저로 '동남아시아의 사회계층'(공저) '한국의 사회발전' '현대 한국사회 성격 논쟁' '막스베버와 동양사회' '라틴 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등이 있습니다.